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강의(20)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야기들

우리는 지금 "세계는 주관이 만든 환상(三界唯心, 萬法唯識)"이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 뜬금 없이 영화 얘기 하나를 해 볼까 합니다.

불교적인 너무나 불교적인 영화
구로자와 아키라(黒澤明)는 1951년에 <라쇼오몽(羅生門)>이라는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 대상과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동시에 수상하여, 일본 영화를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소문만 들던 그 영화를 미국에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흑백의 낡은 필름이 일반 극장 상영관 한 편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관객은 영화를 배우는 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인 몇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상영이 끝나고, 그들이 하는 토론까지 다 듣고 나서, 손을 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근본적으로 '불교적'이며, 인간 인식의 영원한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

영화의 스토리를 개관해 주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 출시되지 않은 듯합니다. 귀국 후 서울에 대 영화와 강한섭 교수께 부탁하여 일

본 NHK에서 방영된 것을 녹화한 테이프를 빌려 본 적이 있고, 저번 대만의 학회에 들렀다가 필름가로 팔고 있는 이 영화의 DVD판을 사볼 수 있었습니다.

첫 장면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승려'와 '나무꾼'과 '결인'이 쇠락한 절터의 라쇼오몽(羅生門) 아래에 모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무꾼은 자신이 목격한 기이한 사태를 탄식을 섞어 들려줍니다.

서로 다른 증언들
'나무꾼': 숲 속을 걷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여자 모자가 떨어져 있었고, 좀 더 가다보니, 남자의 모자, 밧줄과 부적이... 이들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사무라이의 시체가 있었다. 나는 놀라서 관청에 신고했다.

장면이 바뀌어, 악명 높은 '산적' 다조마루가 밧줄에 묶여 관청에 잡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무라이'를 죽였다고 순순히 시인합니다. 여기까지가 서곡입니다. 문제는 이 살해를 둘러싼 진실입니다. 그 사건에 개인한 사람들의 증언이 서로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산적' 다조마루의 증언: "그때 산들바람만 불어오지 않았어도... 사무라이와 그 아내가 길을 가고 있었다. 사내는 걷고 여자는 말을 타고 있었는데, 산들바람이 배일을 살짝 들추었다. 거기 드러난 여자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 나는 여자를 가지겠다고 작심했다. 길을 막아서서 사내에게 조선산 검을 찌게 팔겠다고 유혹, 숲 속으로 끌고 가 밧줄로 묶어버렸다. 그녀는 남편이 당한 꼴을

다가가다가, 격한 마음에 실신해 버렸다. 깨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고, 나는 정신없이 강가로 달려가 몸을 던졌으나, 목숨이 모질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결인'은 짜증을 내며, 들을수록 헛갈린 듯하며 서투릅니다. 그러나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려'는 이번에는 살해당한 남자, 그 '사무라이'의 증언을 들려줍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

이에 아내는 도망가 버렸다. 나는 수치와 회한에 떨다가 아내의 단도로 가슴을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잊지 못한다. 앞서가는 산적의 허리를 붙들고,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가리키며, '아노 히토오 코로 시테 무다사이, (저 남자를 죽여주세요) 하고 외치던 아내의 얼굴을..."

과연 진실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독백에도 나무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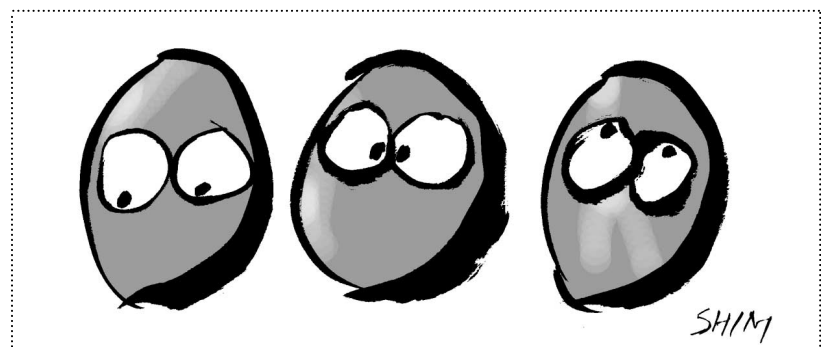
년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결투를 생각은 없다'면서 '네 녀이 죽어라'라고 퍼붓는다. 산적도 겁이 나서 주춤했다. 그러자 여인은 둘 다에게 '사내답지 못하게서!'하고 비웃었고, 이 비웃음에 두 남자는 마지못해 결투를 벌였다. 그러나 그것은 당당하고 능률한 결투가 아니라, 잔뜩 겁에 질려 발발떨면서 방방 도는 꼴이 측은할 지경이었다. 앞치락뒤치락하다가 어쩌다 산적의 칼이 남편의 가슴에 찔렸다. 그 사이에 여자는 도망갔다."

영화 라쇼오몽, 혹은 상(相)이란 무엇인가

보고, 단도를 빼들고 달려들었고, 나는 간단히 그녀를 제압하여 키스를 퍼부었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나를 받아들이었다. 일을 마치고 갈 길을 가려 하자, 여자가 막아섰다. '이리된 마당에, 두 남자를 섬길 수 없으니,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내를 풀어주고, 정정당당히 칼까지 쥐어주고 결투를 벌였다. 격한 싸움 끝에 사내를 찌르고 나서 돌려보니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절간에 숨어 있다 발견된 여인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라이의 아내' 마사코: "산적은 나를 범한 다음, 남편에게 조롱을 퍼붓고 나서, 숲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남편에게 다가갔으나, 남편은 몸을 버린 나를 차가운 증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절망적 심정으로, '그런 시선을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며 단도를 꺼내려고 남편에게



요, 격정 마십시오. 무당의 도움을 빌렸습니다.

'사무라이' 다케히로: "산적이 아내를 범할 때, 나는 질투를 느꼈다. 아내는 아름다웠다. 그런데, 일이 끝나자, 아내는 놀랍게도 산적에게, 나를 죽이고 자기와 함께 달아나자고 유혹했다. 이 제안에, 산적조차 놀랍고 불쾌해 하면서 부정한 아내를 벌주려면서 오히려 나를 풀어주었다. 그러는 사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었다. "내가 본 시체에는 단도가 아니라 칼이 꽂혀 있었어!" '나무꾼'의 증언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팡바닥에 있는 여인의 모자를 잡고 나서 숲 사이로 훑쳐보니, 산적은 여인에게 사랑을 맹세하며, 결혼해 달라고 애걸하고 있었다. 산적의 제안에 난감해진 여자는, 두 남자가 결투로 해결하면서 남편의 밧줄을 끊어주었다. 그러나 남편은 '너 같은

이쯤에서 우리는 드디어 '객관적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합니다. 그러나 안도는 아직 이르립니다. '결인'은 '나무꾼'에게, '아직 숨기는 것이 있지? 다 털어놓지 그래'라고 다그칩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쇼오몽의 뒤편에 버려진 아기가 있었습니다. 결인이 아기의 웃을 벗겨려 하자, '나무꾼'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결인은 "단검을 훔쳐간 도둑 주제에..."라면서 나무꾼에게 대들지요.

결인이 기어코 아기의 웃을 벗겨내 챙겨 떠나자, 승려는 인간 존재의 '거짓'에 대한 깊은 환멸에 젖습니다. 나무꾼이 아기를 데려가려고 손을 내밀자, 승려는 "아직 더 훔칠 것이 있느냐"라고 화를 냈고, 나무꾼은 자식 하나쯤 더 있어도 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 아기를 돌보고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승려는 이 말에 인간에 대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나무꾼에게 아기를 건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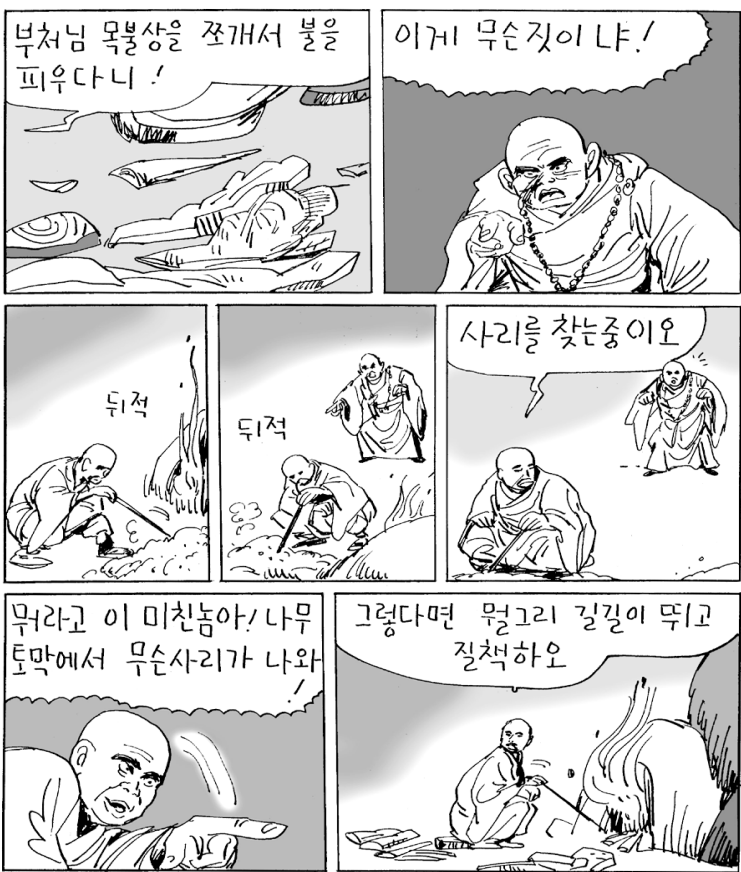
이것이 영화의 스토리, 그 대강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사파라...

④ 단하천연선사의 '목불'



조태호



단하천연 선사(739-824): 태어난 곳과 본관 · 성씨 등은 전해지지 않는다. 마조도일의 문하에 들어갔다가 석두선사에게서 삭발한 후 활달한 선기를 펼쳐 보였다.

네터즌 교리문답

'이입사행(二入四行)'의 뜻은?

Q 보리달마가 말씀하신 '이입사행(二入四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선으로 가는 두 가지의 길과 네 가지의 실천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IDROLLINGH)

답1: 교와 선(염불, 참선, 기도 등 모든 행을 총칭)을 함께 하는 것을 이입(二入)이라 칭하며, 실천적인 수행의 방법을 약속한 것을 사행(四行)이라 칭한 방편적인 언어입니다. 참언하면 정과 해, 유훘과 무위, 번뇌와 보리 등도 이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뇌 없이 보리를 알 수 없으며 보리 없이 번뇌를 알 수 없는 이치입니다.

결국은 공과 실상을 들어서 중도로서 이치에 이르는 길을 열어 보인 것입니다. 기타 이입과 사행의 의미는 인터넷으로 뒤져서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불심)

답2: 이입사행은 그 원형이 <금강삼매경>과 같은 반야계 경전에 있습니다. 즉 반야사상에 그 근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란 '지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대승불교의 모든 실천덕목은 이 반야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야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에서 일관된 핵심이자 원리입니다. 또 인생과 세계를 투시할 수 있는 깨달음의 예지입니다. 그러므로 선은 인생의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이며, 반야를 실천하는 인간의 깊은 예지인 것입니다.

보리달마의 이입사행에서는 반야공관과 바리밀의 실천을 근간으로 하는 대승불교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야)

답3: 도에 이르는 길은 많으나 근본을 들어 말하자면,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진리의 깨달음에 의한 입문, 즉 이입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천에 의한 입문, 즉 사행입니다. 진리의 깨달음에 관한 입문이란 경전의 대체(大體)를 꿰뚫어 체득하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동일한 진성을 깊이 믿는 것입니다. 이 참된 성품이 번뇌에 가려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실천에 의한 입문에는 네 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중요의 과보를 갖는 규범(報效), 삶의 여러 가지 가변적인 조건에 따르는 규범(應變), 집착을 버리는 규범(無所求行),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규범(稱法) 등을 말합니다. (불학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 7 8 10 12 13 14 15 6

상식퍼즐

가로
1. 유물과 유적을 발굴하고, 그를 통해 옛 인류의 생활을 연구하는 학문 2. 이름난 산과 큰 천 3. 단단한 것이 부드럽고 무르게 될 4. 경·울·논 삼장 가운데 하나로 경전을 일컫는 말 5.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 6. 대한불교 천태종(天台宗)의 종본산으로 충청북도 단양군 소재.

정답은 26면에

세로
1. 오래돼 예스러운 풍치나 모습이 그윽함 7. 일제하 대표적인 선지식 중 한 분으로 선농(禪農)불교를 내장사에서 실천에 옮김 8. 지대·수대·화대·풍대 9. 산 위에 쌓은 성 10. 천수관음의 유래, 발원, 공덕 따위를 말한 경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독송됨 11. 화산이 분출하여 형성된 섬 12.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음 13. 구름의 반대 14. 순간적으로 강력히 번쩍이는 빛 15. 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름.